



**참여와 개입 :**  
**기록, 그리고 전문가의 실천**

**이현정**

### ▪ 기록학(SAA)

✓ 기록된 자료에 대한 평가, 획득, 진본 입증(authenticating), 보존, 검색 제공의 실행을 지원하는 이론의 체계 정연한 일체

### ▪ 기록학의 학문적 과제(丑木幸男, 《아카이브즈의 과학 - 上》)

✓ 아카이브의 특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 : 다양한 인간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억, 일정한 매체에 남겨진 기록과 아카이브즈 사이의 관계를 기록이 만들어진 조직체와 사회에 초점을 맞춰 해명하는 것

✓ 아카이브즈를 보존하는 기록관에 관한 연구 : 조직 내에서의 기록관의 위상을 비롯하여 기록관과 사회와의 관계, 기록관의 사회적 역할, 전문직으로서의 아키비스트 문제 등을 통해 기록관 제도와 이념을 검토하는 것

✓ 아카이브즈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 평가. 선별을 통해 가치 있는 영구보존기록을 확인하고, 그렇게 형성된 아카이브즈 집합 전체의 상(像)에 기초하여 각 기록이 위치하도록 구성. 정리함으로써 공개. 이용을 위한 검색수단을 제공하며, 물리적으로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것

### ▪ 민간 아카이브

- ✓ 민간형태의 모기관에서 생산접수한 영구보존기록물 관리하거나 지역공동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민간집단의 기록을 보존하는 조직, 시설 장소(현문수)
- ✓ 기업, 대학, NGO, 병원, 정당, 노동조합(노동운동), 주제기록관(소수자, 여성, 민주화운동 등), 공동체 아카이브
- ✓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역사, 현재상, 정체성, 의사소통방식 등을 재현할 수 있는 객체(문서, 구술, 다양한 유형의 자료(일기, 엽서 포스터), 유무형의 문화유산(구전, 노래, 춤, 의례 및 의식)를 포괄

- 기록관리 영역이 공식적이고 국가중심의 문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관리 보존해야 함 → 사회적 기억 구축의 토대

3

경계 밖의 수용

- 배제된 소수의 기록화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 일상, 정치사회적 운동, 인권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화 논의가 진행
  
- 기록학적 사회정의의 실현 – 설명책임, 사회정의, 다양성의 실현(Jimerson)
  1. 정치적·사회적 지도자의 책임성을 유지시키고
  2. 열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며
  3. 사회의 불공정을 시정
  4. 과소평가된 사회집단을 문서화하고 인종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
  
- ‘경계 밖’ 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다른 것’ 인지를 수용하는 것 필요 : 아키비스트가 아카이브에서 누가 침묵되고 망각되는지를 검토하고 누구의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념의 확장 필요



- 기록학의 전문성을 사회정의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 기록전문직 임무에 대한 활동적이고 실천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구태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A. Flinn)
- 아카이브와 나아가 더 넓은 사회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정과 차별에 도전하기 위해 대응하는 기록학적 실무(D. Wakimoto)

**기록전문직의 신념 – 더 공정한 미래를 위해**

## 5 연대기적 아키비즘의 추이

### 1930~60년대 중반

- 보존기록의 본질적 속성, 생산질서를 반영한 의미부여, 보편적 가치기준을 담은 범주화 설정 등 근대 기록학 정립
- 1934년 미국국가기록보존소 설립. 역사학의 부수 학문에서 벗어나 정부기록에 대한 책임있는 전문직 역할 대두
- 1909년 미국역사학회 산하 아키비스트협회에서 전문직으로 이해관계의 분화 : 1936년 SAA 출범
- 양차대전 이후 폭증한 정부기록의 효과적 관리에 중점

### 1960년대 중반~90년대 초

- 60년대 신좌파운동의 영향 받음
- 1970년 SAA 연례회의에 초청된 Zinn은 모든 정부문서의 공개 캠페인과 보통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 역사 새롭게 쓰기를 제안
-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보다 완전한 기록 생산을 목표로, 평가와 수집 전문직으로서의 능동적 주체에 고무
-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 - 아카이브가 사회에 대한 기록을 포괄적으로 보유해야 할 책임 실천

### 90년대 중반~현재

-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 받음
- 사회구조적 질서의 일부로 제도화된 보존기록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를 통해 모순을 타개하려는 실천행동이 배제된 소수를 살피고자 하는 사상과 연계
- 다원화 : 담론의 독점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에 대한 대안적 기록화 지향, 다양한 소서사의 공존
- 권력으로서의 아카이브의 (재)균형작업, 적극적으로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정치적 의제에 직접적 활동, 활동가들과 참여 아카이빙 구현

## 6 416 참사기록이란?

### ▪ 416참사기록(이하 416기록) 정의

- ✓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416가족협의회 등이 진행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및 대한민국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한 기록과 참사 희생자 및 생존자, 실종자의 기록 및 애도와 추모, 다짐의 마음을 담아 분향소, 추모의식, 관련 행사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기관)가 직접 생산, 수집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의미

### ▪ 416기록의 범위

- ✓ 희생자, 생존자, 실종자 기록 : 사고 당시의 기록, 희생학생 개인사 관련 기록, 생존학생 활동기록, 유가족, 실종자, 생존자 가족 기록
- ✓ 416가족협의회 활동기록 : 진도체육관 및 팽목항 기록, 진상규명 활동 관련 기록(농성, 간담회, 도보순례, 서명운동 등), 가족협의회 의결체계 관련 기록을 비롯한 내부 생산기록, 진상규명 관련 각종 수집기록 등
- ✓ 시민 참사 진상규명 활동 기록 : 개별 시민단체 및 연대투쟁 관련 기록, 시민투쟁 기록 포함
- ✓ 시민 애도, 추모기록 : 분향소 및 추모의식 등에서 생산 기증된 기록
- ✓ 참사진상규명 증거기록 : 정부기관 기록, 청해진 등 직접적 참사와 관련된 기관 관련 기록, 수색관련 단체, 개인 기록 등

이 가운데 참사진상규명 증거기록은 416가족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 이관되어야 할 기록이며, 계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록의 은폐, 망실을 감시해야 할 것임. 본 강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은 기록임

## 7 416기록의 유형

### ■ 416기록의 유형

- ✓ 문서류 : 주요 활동 회의록, 성명서, 보도자료, 일지, 진상규명관련 기관자료, 재판자료, 편지, 자원봉사일지, 추모글 모음, 유인물 등
- ✓ 박물관류 : 손피켓, 몸자보, 방명록, 리본띠, 걸개그림, 종이배, 현수막, 애도 글이 적힌 접착메모지, 피켓, 뱃지, 근조화환리본, 포스터, 팸플릿 등
- ✓ 시청각류 : 416직접관련자 개인일상, 사건당일 참상, 진상규명 관련 활동, 분향소 및 행사 관련 사진, 동영상 등
- ✓ 웹 및 SNS 기록 : 416참사와 관련된 주요 웹사이트(웹컨텐츠)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기록
- ✓ 구술기록 : 416참사와 관련된 인물(단체),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록



### 8

### 416기록의 특징

- 가족협의회 생산기록 중 의결체계 구조상 회의자료(회의록 및 관련자료)가 주요기록
- 참사 관련 기록만이 아닌 개별적 경험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기억하기' 차원의 기록 수집
  - ✓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의 유품, 유류품뿐만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수집
    - 어린시절 사진 및 영상, 편지, 옷, 일기, 생활 공간 사진 등 아이들의 일상적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
- 단체/개인이 생산한 박물류 중심
  - ✓ 여러 사람이 함께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 등에서 애도와 함께 이슈를 다루어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박물류가 다수임
    - 피켓형, 리본띠, 희망종이, 종이배, 접착메모지, 걸개그림 등
- 동일한 유형의 다량의 집합적 기록물 중복 입수
  - ✓ 리본띠, 만장, 근조리본, 플랭카드, 모음형 추모글, 손피켓 등
- 적극적 활용으로 인해 보존상태 심각
  - ✓ 접착테이프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상태로 수집되어 오고, 먼지 및 오염으로 인해 훼손된 상태(곰팡이 번식) 기록물이 다수
  - ✓ 일부 기록의 경우 빗물, 직사광선 등으로 인하여 글이 번지거나 잉크 색이 바래져 내용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도 있음

## 9 416기록의 의미 -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투쟁과 증거의 기록

### 1-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4. 11. 6.  
제안자 : 유원순산소공해방지위원장

#### 1. 제안경위

가. 2014년 7월 1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 특별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월 11일 조속한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월호 4·16사고 원인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최소원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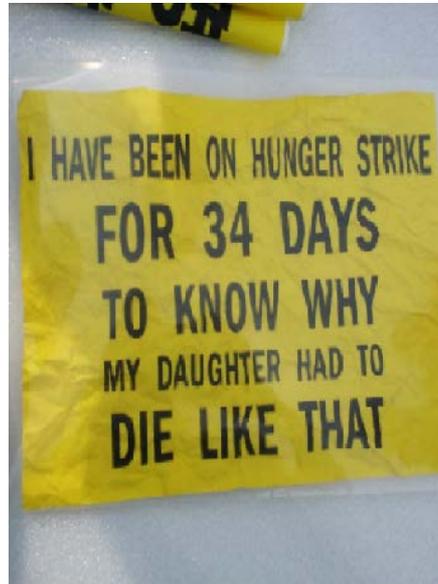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  
제안  
경위



## 416기록은 왜 보존되어야 하는가?(2/4)

10

416기록의 의미 –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투쟁과 증거의 기록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책임있는 사안에 관한 기록을 국가에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피해자가족의 트라우마, 정부의 규명 부인, 언론의 외면, 기록의 파편화라는 총체적 부조리 속에서 416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이를 위한 투쟁의 기록은 사회정의, 설명책임성 있는 정치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임

진상규명 활동기록은 피해자라는 개인(가족)차원을 넘어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신뢰의 복원과 성찰의 기록

# 416기록은 왜 보존되어야 하는가?(3/4)

## 11 416기록의 의미 - 애도와 성찰, 치유의 상징기록



## 416기록은 왜 보존되어야 하는가?(4/4)

### 12 416기록의 의미 - 애도와 성찰, 치유의 상징기록



416참사 추모 및 다짐의 기록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의 기록은 아님

그러나 추모(다짐)기록의 집합적 의미는 증거가치보다 더 오래 시민들에게 416참사를 기억하게 하는 애도와 성찰의 기록이 될 것임

피해자 가족에게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개별 글 속에서도 우리 아이를 걱정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치유의 기록이 될 것임

우리는 활동가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s)를 ‘아카이빙되는 운동의 능동적 참여자’로 규정한다.

그들의 목적이 아카이빙 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든, 참여의 산물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든, ‘실천적 아키비즘은 운동에의 직접적 참여’를 의미한다.

- Queens’ s Collage 월가점령운동 archiving Project 사명 및 콜렉션 개발방침 중에서-

결과와 실체의 획득 중심에서

참여와 개입, 과정으로의 변화



## 14 전문직, 그리고 윤리

### ■ 전문직

- ✓ 전문성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소유하고 고도의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가지며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 ✓ 윤리강령 : 독점적 지식과 기술의 오용 또는 남용을 커뮤니티가 규제하는 원칙, 규칙 제시

### ■ 전문직 윤리의 핵심 키워드 : “공정” “중립” “객관”

- ✓ 윤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직접적 단어의 사용은 감소하였으나 강령의 기초와 실무에 종사(특히 정부기관)하는 아키비스트의 관심도로 볼 때 여전히 핵심적 위치를 차지
- ✓ 가치로부터의 중립, 정치적 중립 - 커뮤니티의 안정성, 계속성, 합리성 유지
- ✓ 중립성 :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가 정치화에 저항하여 그 기록을 무결하게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
- ✓ 객관성 : 종종 중립성과 ICA 강령의 “불편부당성”과 결합하여 동의어로 사용, 중립성 보다 실증주의 입장을 의미

### ■ 윤리강령의 실효성

- ✓ 강령항목이 실무지침으로 실제 적용되고 수행여부의 잣대, 불이행시의 경고나 처벌의 엄격한 도구?
- ✓ 전문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자기향상의 점검 도구로서 일상업무와 연결시켜 전문직 의식을 새롭게 하는 효과?
- 아키비즘과 윤리는 양날의 검. 실천주의가 전문직의 필수 구성요소인 행동강령(윤리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논의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연결

## 15 아키비즘 수용에 있어서의 이슈

### 정체성의 고민

- **전통적인 기록전문직 역할 상실**
  - 전통적인 아카이브 소유권 모델에 반기
  - 유일한 기록관리 과정(평가, 기술, 접근)과 통제 권력의 포기(확장?)
- **복잡하고 불편한 '조력자'라는 정체성**
  - 기록생산자, 기록 주체(기록대상자), 이용자와의 복잡하고 민감한 협력
  - 전문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주위에 있는 사람'
- **커뮤니티 활동의 회색인**
  - Activist인가 Archivist인가

### 활동의 고민

- **보편적인 전문직 윤리만으로 공동체 아카이빙의 지표를 삼기 어려움**
  - 전문직 윤리 배타성(진입 장벽)
  - 내재되어 있는 객관성 중립성
- **'개입'과 '정치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
  - 전문직 윤리와 전면적인 상충문제를 어떻게 기록 커뮤니티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 **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 필요**
  - 기록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직 윤리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지지 독려할만한 윤리 의식의 개발(준용)

16

## 사회참여에 대한 더 보편적인 이유를 찾아서..

- 커뮤니티 기록활동가는 당해 사건(활동)의 개입과 선명한 당파성을 드러냄으로써 더 '공정한' 사회적 기록을 획득할 수 있음
- '기록활동가'의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 보다 보편적인 참여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기록전문직 윤리와 배치되는 활동(정체성) 논란에서 벗어나 확장성 있는 활동의 근거를 획득

### 정치적 책임(Iris M. Young)

- 구조적 부정의
  -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제도와 규칙 아래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하는 선택들로부터 발생(사회적 연계)
  - 재난의 발생과 고통이 사회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회 구성원에게 그 사회적 과정을 변경시킬 의무가 발생 : 정치적 책임
- 정치적 책임
  - 구조적 부정의를 불식하기 위해 집단적 관계를 조직하고 행동을 더 정당하게 조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적 소통에 참여하는 것
  - 재난에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부정의와 불평등의 발생에 책임을 지며, 이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사회적으로 연결된 존재

### 실마리

- 참여와 개입의 근거
  - 사회적 이슈에 직면하여 전문직의 정체성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윤리
- 기록화의 확장
  - 정서의 공동체 구성원 :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재난이 일상의 제도와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정치적 정동의 뉘앙스를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 사태 배후에 있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분석은 과거로부터의 이행 과정과 현재의 불평등구조, 변화를 위한 미래적 도모를 포함, 단지 피해당사자의 '사고'로 인식했을 때보다 기록화의 범위, 맥락, 의미, 이를 위한 활동의 연대 등의 폭이 확장됨

## 17 활동에 더 다양한 윤리를 찾아서..

- 사회적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 활동 기록전문직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되며, 끊임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
-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공동체에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힘들고 충격적인) 기록화, 관리, 활용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
- ✓ 공동체의 자율성과 고유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면서 기록활동가 스스로 의미부여가 필요한 기본 틀 마련 필요

### 보살핌의 윤리(An Ethic of Care)

- 감성의 윤리
  - 정의윤리가 간과했던 타인에 대한 보살핌, 연민, 상호의존성과 유대감, 관계성, 공감 등을 중시함으로써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던 보살핌의 특성을 남녀모두의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제시
  - 사회정의에서 단지 분배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측면들을 더 많이 포함. 보살핌은 쌍방향적이며 상호성을 중요시. 보살핌의 대상자는 조작되어야 할 대상이나 데이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조우
  - 보살핌의 윤리는 관계적(relational)임. 관계란 단순히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목적과 가치의 의미를 내포한 '성장을 촉진시키는 관계'를 의미(관계문화이론). 다른 사람을 보살핀다는 것은 그를 성장시켜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실마리

- 접근할 수 있는 힘의 배양
  - 구체적인 성과, 획득되는 물리적 실체라는 생산주의적 접근보다 사람의 의식에 끼치는 영향, 체득과 공감의 경험을 기록 영역으로 확장, 잠재적 다양성의 시도
  - 보살핌의 윤리적 접근은 공감과 의무를 기본으로 하며 추상적 도덕 원칙보다 특수성, 연결성 맥락을 강조. 냉담하고 엘리트적인 제도 환경에서 정서적인 이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기록화 접근법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
  -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참여와 교감은 정서적 친밀감, 사회적 공통성, 정치적 연대감을 형성. 고통과 슬픔을 공유한 정동 공중의식을 통해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체득, 기록화로 연결

## 18 반성적 성찰인

- 기록공동체가 보다 직접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적 이슈를 포괄하면서 기록과 아카이브의 역할론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새롭고 자기혁신적이며, 더 투명한 방식으로 과거를 제어하고 의미의 해석자이자, 중개자, 아카이브의 활동적인 중개인으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역할 필요
  - ※ 전문성의 정치 → Archival Stewardship
- 공동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신의 기록을 획득하여 관리하도록 과정을 설계, 조정하고 내러티브의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으로 사회의 공공선을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것
- 기록전문직이란..
  - ✓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과정에서의 성찰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
  - ✓ 즉, 동시대 사건을 경험하고 관련된 이들을 이해하고 설명책임성 있게 아카이빙해 나갈 수 있는 반성적 성찰인(reflective practitioner)